

## 건국대학교 2015학년도 모의 논술문제 (인문사회계 I)

[문제 1] :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에 제시된 설문 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시오.  
(400~500자) (40점)

[문제 2] : [가]와 [나]의 주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라]의 인물 '다인'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800~1,000자) (60점)

### [가]

개인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의 삶의 목적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적 존재이기도 하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개성과 신념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선택은 자신을 포함한 공동체적 관계의 영향을 포함하는 것이다. 즉 개인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공유된 가치와 사회적 배경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가 부여하는 삶의 목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공동체를 선택하기 이전에 이미 공동체 안에서 태어났고 공동체 안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요구받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우리가 삶의 목적의식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공동체주의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현실적 존재이다. 개인의 정체성은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공동체적 관계와 가치에 뿌리를 두고, 개인과 사회가 상호 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교과서-

### [나]

다수결원칙은 언뜻 보기에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다수의 의견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틀린 의견을 다른 의견으로 오인해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의 재판에는 완충 장치로 '만장일치' 제도가 있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배심원들은 의논을 통해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아야만 한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는 여전히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12인의 노한 사람들」에서는 11명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만, 단 한 명(헨리폰다)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을 가진다. 그러자 다수는 그의 의견이 '틀렸다'고 단정 짓고, 언짢은 분위기를 조성한다. 물론 정의의 수호자인 주인공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자 그들의 마음은 천천히 돌려지기 시작한다. 「12인의 노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12명의 개성 있는 캐릭터와 갈등 관계를 사실적이면서 동시에 극적으로 묘사한다. 이 영화는 50년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련된 이야기를 가진 작품이며, 사람들은 세상의 발전에도 여전히 그때와 같은 실수를 하고 산다는 점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평론가는 이 영화의 진짜 매력을 '영화를 본 이들이 배심원이 되었을 때 스스로 헨리폰다같은 정의의 수호자로 느끼게 만든 점'을 들었다. 세상에는 더 많은 옳은 소수의견이 필요하다.

-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대]

한국의 현대사는 20세기 산업화, 21세기 정보화 시대로 요약된다. 이러한 정치사회적 추이와 함께, 삶의 가치관의 변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세대 간의 가치관의 차이는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개인의 존엄성과 개성을 강조하는 개성적 가치와 개인보다는 국가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존중하는 보편적 가치 사이에는 시대별, 세대별 간극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표1과 표2에 제시되었다.

표1. 20세기 산업화 시대

	개성적 가치 존중도	공동체적 가치 존중도
청소년층	35%	65%
노년층	14%	86%

표2. 21세기 정보화 시대

	개성적 가치 존중도	공동체적 가치 존중도
청소년층	85%	15%
노년층	19%	81%

[라]

S#15. 교무실 앞 복도(아침)

광도 (여학생 향해) 넌 학교가 술집인줄 알아?(머리, 출석부로 치며) 머리 염색한 거 봐라 이거! 이 녀석들이 학기 초부터 빠져갔구 말야!

광도 (아이들 향해 소리)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 차리지, '잘못했습니다, 멍멍' 실시!

아이들 잘못했습니다!

해쓱해져 있는 다인, 자신의 운동화 내려다 보고... 둘러 보던 광도, 그런 다인 발견한다.

광도 ... 넌 뭐야?

다인 (어렵게) ...자, 잘 모르겠습니다.

광도 (황당한) ...뭐?

다인 (어렵게) ...학교에서 운동화 신으면 왜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운동화 신고 왔거든요.

광도 ...뭐야

다인 (...어렵게) 그게 아니더라도, 운동화가 위험해서 못 신는 신발두 아니구... 왜 이렇게 까지 못 신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광도 (말 자르며) 이건 뭐야 이거!(다인 머리 출석부로 퍽)

갑자기 날아온 가격에 옆으로 휘청하던 다인.

광도 뭘 이해를 못해 임마! 길 한복판에 똥 싸서 잡아 오니까 왜 여기다는 똥 싸면 안돼요? 잔말 말고 물어! 교칙은 교칙이고 넌 교칙 위반이야! 물어!

그러나 다인, 운동화 보며 앉아 있다. 아까보다는 단호하다.

광도 (가만히 보다가 기가 막힌듯)...아쭈? 너 지금 끝까지 해보겠다는 거냐?

다인 ...설명...해 주세요. 왜 운동화는 안되는지 이해가 되면... 바로 물겠습니다.

광도 ...뭐야? 이해? 이해가 안 가면 어쩔건데? 이 자식이 보자보자 하니까!

재현 선생님! 참으세요.

광도 (뿌리치며) 조 선생, 이거 놔 봐. (다인 향해) 이거 아주 웃기는 놈이잖아? 야, 뭐라구?

재현 박 선생님, 진정하세요

광도 아 지금 저 녀석 반항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주 방법두 가지가지루... 나 이런 건 절대 그냥 못 넘어가요! 야 너! 교칙 인정 못해? 운동화 못 물어?

입술 굳게 다문 다인, 운동화만 내려다 보며 무릎 꿇고 앉아 있다.

#### S#16. 동 복도(오전)

벌 서던 아이들, 모두 돌아가고 혼자 남은 다인.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운동화 안 물고 앉아 있다. 복도 끝 혜란과 나영, 다인 보며 수근거린다.

나영 (걱정) 벌써 몇 시간째야... 저러다 다리 돌 되겠다.

혜란 (통) 재 좀 너무 튀는 거 아니냐?

나영 자기 좋아서 저러겠어? 이해가 안 간다잖아... (잠깐 생각하다가) 왜 이해가 안 되지? 규율인데.

교무실 앞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벌 서는 다인.

-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 -